

전기로 만드는 행복
서북공감

2023
JANUARY · FEBRUARY
VOL.111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은 지구 환경과 동식물의 공존을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실현합니다.

COEXISTENCE

SPECIAL THEME ____공존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사보 서부공감

2023 1+2월호(통권 111호)

발행인 박형덕
기획 정래현, 김정호, 김예지
발행일 2023년 1월 20일
발행처 한국서부발전 커뮤니케이션실
TEL. 041-400-1298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기획·디자인 BeOK
TEL. 02-2038-2369

인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TEL. 02-2269-5523

표지 사진 © unsplash.kr / 사진 © unsplash.kr

CONTENTS

VOL. 111 2023 1+2월호



4 신년사

OUTSIDE

6 OPENING

공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8 DEEP INSIDE

위기의 지구를 위한 해법, 공존(共存)

남성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12 LITERACY

지구가 보내는 SOS 신호

14 ICON

자연 그대로, 생명력의 복원

윤종민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박사

18 CURATION

다르다는 것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

민용준 영화 저널리스트

20 ROAD

구미, 고즈넉하게 낙낙하게



INSIDE

26 OPENING

함께하는 서부발전을 위하여

28 TECH+

수소혁신 발전, 어디까지 왔을까?

30 SYNERGY

4인4색 인터뷰! 공존을 공론하다

34 HEROES

그대들이 있어 늘 안심이다

코웨포서비스 이도연, 이순진, 이순화, 권혁남

INSIDEOUT

38 TO DO LIST

나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까?

40 WP ISSUE

41 WP NEWS

42 CAMPAIGN

43 EVENT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최고의 발전사로 비상합시다.”



서부가족 여러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날이 오면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각들이 함께 옵니다”라는 엘리너 루즈벨트의 말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저는 취임 후 거창한 경영전략이나 구호보다는 우리 회사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내실 있는 경영에 중점을 두고 달려 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문화의 정착을 통해 최고 수준의 안전한 회사를 구현하였고, 젊은 직원들과 차장들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도권 중심의 전국 규모 사업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수소혼소 실증 추진을 통한 가스복합 수명 연장 등 미래 경영동력을 확보하였고, IGCC의 수익문제 해결을 통한 안정적 재무구조도 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포 열병합, 구미 복합 건설 등 에너지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만 태양광 500MW를 수주하는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고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최고의 발전사로 비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경영방침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안전문화를 구현합시다.

작년 한 해 많은 노력을 통해 안전 부실기업의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었으나,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서부 및 협력사 직원 모두가 함께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 경영혁신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강도 높은 재무 개선 노력을 통한 부채 감축과 효율적 투자로 건설한 성장구조를 구축하고, 비핵심 기능과 자산은 과감히 정비해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회사가 되어 에너지 산업을 선도합시다.

서인천 가스터빈을 활용한 수소혼소 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미래 수소 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김포 열병합을 통한 국내 최초 한국형 가스터빈의 성공적 실증과 그동안의 대형 국책 R&D 과제 수행을 통한 노하우를 집약해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회사로 발돋움합시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상생으로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단순 일회성 지원에서 탈피해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회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계속해서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소통으로 신뢰의 기업문화를 구축합시다.

세대 간 공감소통, 상생의 노사문화, 부서 간 협업 등으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서부를 만듭시다. 나아가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과 내부통제 강화 노력으로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받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서부인 여러분!

우리의 경쟁 상대는 더 이상 타 발전사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전력시장 제도 변화, 글로벌 경제 위기 심화 등 올해도 경영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도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최고의 발전사로 비상합시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사장 박형덕

공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새해를 맞이하며
한국서부발전은 나아갈 방향성으로서의
'공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지할 목표이자 추구할 방향성으로
공존을 언급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실현할 길을 모색하는 일이
개인에게는 환경을 지키는 일상의 실천이
가능함을 넘어 당연해지도록

<서부공감> 111호에서는 지구의 오늘을 살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위기의 지구를 위한 해법, **공존** 共存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부터 사상 최악의 폭염·한파까지 수많은 위기가 지구를 덮치고 있다. 우리는 자연이 위기의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여타 생명의 처지에서 보면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을 오염시킨 인간이 원인일 것이다. 지구를 떠날 수 없는 인간과 인간을 버릴 수 없는 지구, 두 위기의 존재가 공존할 방법은 없을까? 글 남성현(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자연적 기후 변동성을 압도한 인위적 기후변화

오래전 지구에 여러 차례 빙하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기후는 인간 활동과 무관하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약 1만 년 전부터 지구는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고, 덕분에 인류는 안정적인 기후 속에서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다.

산업화 이후 경제활동 과정에서 기후는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산업화로 대기 중에 누적된 탄소가 온실효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을 압도하는 인위적 기후변화를 초래했다. 100년 만에 무려 1°C 이상 지구의 평균온도를 상승시켰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할 때 25배나 빨라진 속도로 우리는 지구의 평균온도 변화를 만드는 중이다.

기후 위기에서 기후 재난, 이제는 기후 재앙으로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소극적 대처로 일관했던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최근에는 기후 '위기'(Crisis), 기후 '재난'(Disaster), 기후 '재앙'(Catastrophe) 같은 표현까지 등장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시급성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는 그저 지구 평균온도가 조금 오르고 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온난화로 표현되는 인위적 기후변화는 원자폭탄이 1초에 4~5개씩 폭발하는 수준의 엄청난 에너지가 지구, 특히 해양에 흡수되어 해양순환을 바꾸고 지구 기후 시스템 작동 원리를 변화시킨다. 전 세계 도처에서 각종 기상이변과 전례 없는 수준의 자연재해가 속출하는 원인이 바로 지구온난화다. 바닷물의 수온이 증가하고 빙하가 사라져 전 지구적인 물 순환과 열 교환 시스템이 바뀌면서 폭염, 한파 같은 극한 기온부터 폭우, 폭설, 가뭄 등 극한 강수량 문제가 연이어 발생한다. 태풍,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자연재해의 특성조차 변화시켜 기후 재난을 넘어 기후 재앙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기후변화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 생태계 전반이 변화하고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며 인류의 절멸까지 우려할 상황이다.



떠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우리가 지구와 공존하려면?

영국의 이론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인류는 지구온난화를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 근접했다. 200년 안에 지구를 버리고 떠나라!”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야심만만하게 민간 우주여행을 시작했고 화성 식민지 건설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지구를 버리고 떠날 능력이 없다. 사실 능력은 차치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릴 자격이 없다. 산업화 이후 물질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지구 환경을 악화시켜왔기에 우리는 그동안 누린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인류는 이 기후 위기 속에서 다 함께 생존한다는 공존의 해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고 너무 빠른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각종 손실과 피해로부터 복구하는 노력 등을 전 지구적인 규모로 빠르게 실천해야만 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¹⁾, ESG²⁾, RE100³⁾ 등 지속 가능 방식에서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위해 최근 나타나는 일련의 움직임은 모두 심화하는 기후 위기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들이다. 기후 위기가 더욱 심화하며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앞서 제시한 3가지 해법이 그 첫발인 셈이다.



남성현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로 인간과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해양관측 중심의 자연과학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 <반드시 다가올 미래>, <2도가 오르기 전에>, <위기의 지구, 물러설 곳 없는 인간> 등을 집필했다.

공존의 해법, 쉽게 알아봐요!



1) 탄소중립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넷제로(Net-Zero)라고도 한다. 2016년 파리협정 이후 세계 각국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머리글자를 딴 약어로 환경과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까지 고려한 기업성과지표를 뜻한다. 최근 ESG 기준 미달 기업은 투자 포트폴리오 검토에서 제외되는 등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3) RE100

Renewable Energy 100% 약어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국내에서는 RE100 참여 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구가 보내는 SOS 신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절감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기후 위기로 생태계가 무너지고 육지와 담수, 바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생물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알게 된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참고 자료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기상청)

더 뜨거워지는 중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2018~2100년 평균온도는 6.3℃나 오를 전망이다.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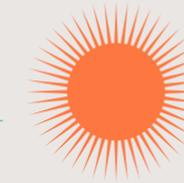
두 달 이상 이어지는 폭염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전국 평균 폭염 일이 두 달 이상 지속된다니! 수박, 팔빙수, 아이스크림을 달고 살아도 더위를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다.

79.5일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상관관계
요즘 학자들은 두 현상의 연관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동식물의 멸종 원인이 다양하며 기후 위기가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도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인간 삶의 위기를 불러왔듯이 동식물에게 끼친 악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열대야로 잠 설치는 날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를 점쳐보니, 두 달 남짓.

68.5일



겨울이 사라지고 있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졌다. 시나리오가 아니라 당연한 현실이다. 어쩌면 다음 세대는 겨울 없는 한국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여름	겨울
2011~2020년	127	87
2001~2010년	118	93
1991~2000년	113	90
1981~1990년	113	102

멸종위기에 처한 생명체들
2022년 12월, 환경부는 국내 야생생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 282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하나의 종이 사라지면 적어도 30종 이상의 종이 연쇄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1989년 92종
1993년 179종
1997년 267종

2022년 282종



*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며, 최악의 시나리오(SSP5-8.5) 수치를 차용해 본 원고를 구성했다.



자연 그대로 생명력의 복원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윤종민 박사

산, 강, 바다는 물론 새와 물고기, 나무, 꽃은 모두 저마다의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생겨나고 발전한다. 자연의 의미는 원래 그러했다. 그러나 저마다의 힘이 스러져만 가는 요즘이다. 다행히도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는 생명을 지켜내려는 고군분투를 이어가고 있다.

Q. 요즘 기후 위기가 곧 생태계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현재 생물종이 겪는 중인 멸종위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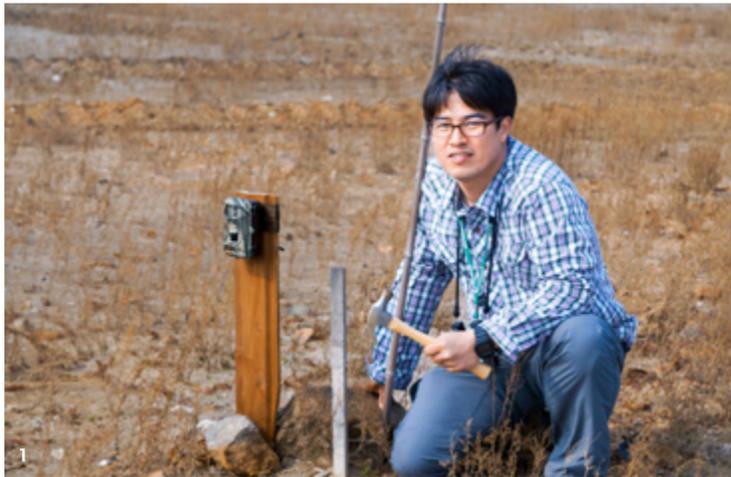
대진화(Macro Evolution)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 종이 생성하고 멸종하는 것을 진화의 과정이라 여겨요. 한 종이 사라지고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그렇기에 사라지는 생물종을 복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지구는 오래전부터 여러 번의 대멸종(Mass Extinction)을 겪었습니다. 1차 대멸종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말(4억 4,300만 년 전)에 일어났고, 2차 대멸종은 고생대 데본기 말(3억 7,000만 년 전)이라고 알려졌지요.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의 멸종을 홀로세(Holocene) 대멸종 또는 인류세(Anthropocene) 대멸종이라 부릅니다. 신생대 제4기 홀로세에서 인류세에 걸친 시기에 진행되고 있으니깐요. 인류세란 인류가 지구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시대를 뜻하지요.

2017년 환경부는 야생생물 267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12월 멸종위기종을 282종으로 개정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평가를 거쳐 멸종위기종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개체 수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고요.

Q. 정리하자면 이 시대를 인간이 기후와 생태계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이끄는 인류세라 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대멸종으로 사라지고 있는 생물종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대멸종이라 판단할 때 나타나는 공통 징후가 있습니다. 약 30% 이상의 식물, 동물 종이 멸종하고 특정 생물군이 아닌 여러 생물군에서 멸종이 나타나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지요. 또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한 가지나 혹은 연관성이 있는 일련의 사건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공통 징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요.



지금의 기후변화는 기후 위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서야 멸종위기의 야생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태 감수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1960~1970년대 경제 개발에 집중하던 시절에는 폐수나 매연을 무분별하게 방출했지요. 그러는 동안 호랑이나 표범, 크낙새, 소동구리 같은 종은 한반도에서 절멸했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사라지는 종이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Q. 생태계는 개별적이지 않다고 하던데요.

하나의 생물종은 다른 무수히 많은 생물종과 생태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한 종이 사라지면 적어도 30종 이상의 종이 연쇄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가 왜 멸종위기종 보호에 힘써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지요.

Q.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일이 곧 멸종위기종의 보호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조류팀에 속해 멸종위기에 처한 새를 복원하는 일을 하지요. 검은머리갈매기, 양비둘기, 저어새, 참수리, 황새의 동태를 파악하고요. 전국 분포 조사를 통해 핵심 서식지에 있는 위협요인을 찾아 이를 저감하는 활동을 합니다. 가락지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공간좌표를 수집하고 분석해 철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전국의 인구통계를 내듯이 새의 분포를 조사한 후 멸종위기종의 보전과 관리에 힘을 쓰는 일이지요.

“하나의 생물종은 무수히 많은 다른 생물종과 생태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한 종이 사라지면 적어도 30종 이상이 연쇄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이전에는 멸종된 개체를 수입해 증식하고 자연에 돌려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요즘은 서식지를 개선하는 데 힘을 씁니다.”

Q. 보전과 관리에 힘을 신는다는 것을 더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멸종된 개체를 수입해 사육장에서 증식한 후 자연에 돌려보내는 데 중점을 뒀어요. 그런데 개체 수를 늘려 자연에 돌려보내도 결국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는 게 쉽지 않지요. 그 때문에 요즘은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 서식지를 개선하는 데 힘을 쓰고 있어요. 언급한 대로 멸종위기종의 안정화를 위해 서식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지요.

Q. 어렵지만 중요한 일을 위해 힘을 보태기 원한다면요?

식목일 아침이면 종종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던 한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Jean Giono)가 1953년에 발표한 동화 <나무를 심은 사람(L'homme qui plantait des arbres)>을 원작으로 리메이크해 제작한 동명의 영화이지요. 프로방스의 알프스 끝자락, 어느 황량한 계곡에서 살아가던 양치기 노인이 반백 년 동안 꾸준히 도토리를 심어 그곳이 풍요로운 숲으로 변모하는 것이 중심 스토리입니다.

위협에 처한 멸종위기종을 지키는 사람들은 곧 이 영화의 양치기 노인과 같지요. 꾸준히 도토리를 심듯이 우리 곁의 생물을 지키면 우리는 풍성한 숲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지역 단위의 공존협약체가 멸종위기종과 서식지를 자발적으로 보호하는 활동이 활발해지기를, 우리 사회가 ‘공존(共存)-공유(共有)’의 연계성을 이해하며 함께 살아감의 생명력을 이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1 현장에서 철새의 이동을 관찰하는 윤종민 박사
2 검은머리갈매기 동지의 포식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
3 알을 구조한 후 인공 부화를 유도하는 모습
4 황새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관찰한 현장
5 멸종위기에 처한 양비둘기





다르다는 것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

각각의 삶을 사는 이들이 모여 이룬 세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각자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글 민용준(영화 저널리스트&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첫 겨울 월드컵이자 대한민국의 16강 진출과 메시의 아르헨티나 우승으로 여러모로 인상적인 기억을 남긴 제22회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첫 경기에 나선 이란 대표팀 선수들은 국가를 제창하지 않았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 의문사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 사건으로 촉발된 자국민들의 반정부 시위에 연대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역설적이지만 공존은 이런 것이다. 여전히 정부에 반대하는 태도만 드러내도 목숨이 위태로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도 4년에 한 번씩 한 나라에 모여 축구를 한다. 살아가는 환경과 누리는 문화와 신앙하는 종교와 피부색은 다르지만, 축구는 동일하다. 네모난 그라운드에서 둥근 공 하나를 상대의 골 안으로

밀어 넣기 위해 기량을 펼치고 자웅을 가린다. 각기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축구를 통해 하나의 규칙을 공유한다. 그렇게 다양한 세계가 동일한 행위와 목적으로 잠시 뒹잉킨다. 서로의 차이는 상관없다. 그저 축구를 할 뿐이다. 덕분에 우리는 평소 접할 수 없던 세계와 조금이나마 가까워진다. 그렇게 서로의 차이를 부정하지 않고 한데 모여 하나의 놀이를 즐기다가 때가 되면 헤어진다.

물론 세계인들이 함께 모여 공을 찬다고 해서 전 세계가 마냥 평화로운 건 아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전쟁터다. 심지어 러시아의 공습으로 전력 공급 시설이 파괴된 탓에 한겨울에 전력이 끊겨 난방할 수 없어서 추위로 신음하는 이들이 1,000만 명은 족히 된다고 한다. 그 와중에 이상 기후 현상으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흑한과 폭설이 덮쳐 적지 않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관

기후 위기 상황의 공통점은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어쩌면 인간 자신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간을 인간으로서 살게 만드는 것 역시 인간 자신일 것이다.



련 사고가 속출했다. 이런 극단적인 날씨는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일어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의 양상과 막을 길이 요원해 보이는 기후 위기 상황의 공통점은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어쩌면 인간 자신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간을 인간으로서 살게 만드는 것 역시 인간 자신일 것이다.

민용준이 추천하는 공존에 관한 영화

1) 인간과 자연의 공존, <아바타: 물의 길>

지난 2009년에 개봉해 전 세계 박스오피스 최고 흥행 성적을 거둔 <아바타>는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한 인류를 향해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다. <아바타>가 숲과 인간의 관계를 조명하며 자연과의 공존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라면 최근 개봉한 <아바타: 물의 길>은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조명하며 또 한 번 환경에 관한 메시지를 제시하는 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상의 세계이지만 현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의 폭력성과 무심함에 경종을 울리는 시각적 체험은 생생함을 넘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와의 관계를 각성시키는 권유에 가깝다. 동시대에 가능한 시각적 체험의 경지를 한 차원 높이겠다는 야심은 결국 인류가 지금 마땅히 지키고 보존해야 할 자신들의 터전에 대한 생생한 감각을 요구하는 기술이나 다름없다.

2) 신규 세대의 공존, <그랜 토리노>

50년 전 한국전에 참전했던 월트(클린트 이스트우드·Clint Eastwood)는 뺏속까지 보수적인 미국인 백인이다. 예의가 없는 젊은 세대들은 더는 자신이 긍지를 갖고 있던 것들을 예우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회의감만 가득하던 월트는 평소 자신이 경멸했던 동양인 이웃들과 뜻밖의 인연을 맺은 뒤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랜 토리노>는 그 변화에 관한 이야기다. '그랜 토리노'는 월트가 젊은 시절을 보낸 포드사의 1972년형 머슬카다. 그에게는 훌륭한 유산이지만 자식들은 탐탁지 않아한다. 그런 와중에 이웃의 동양인 소년을 통해 이방인들이 자신 이야기의 것을 물려줄 건강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기로, 그것이 노쇠한 육체로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노장이 열어낸 길로 청년은 나아간다.

구미 고즈넉하게, 낙낙하게

명산을 오르며 고즈넉함을 만끽했다. 자연에 깃든 고요가 마음을 다독여주었다.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금리단길을 걸을 땐 소소한 즐거움에 사뭇 설레었다. 책과 함께 마음마저 낙낙해지는 여유를 누렸던 구미 탐방기. 사진 전문식

경상북도 구미는 옛것과 나중 것이 공존하는 도시다. 가야시대 고분군과 유적이 여전히 발굴되며, 조선시대 통치 이념인 성리학의 발원지이기도 해 역사 문화 탐방을 원하는 이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볼거리를 펼쳐 놓는다.

구미는 1970년대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덕분에 신구조화를 이룬 외양을 갖게 되었다. 옛것은 오래 보존되도록 보살피면서 나중 것을 너른 마음으로 받아들여 다채롭게 변화했다. 구미는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사람과 공간을 품어 안으며 다양한 색이 공존하는 도시로 변모 중이다.

고요하고 안락하게 여행자를 품어주는 금오지 풍경

SPOT 1

영남의 오랜 얼굴, 금오산

금오산은 2002년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 중 하나로, 다양한 문화재를 품고 있어 구미 여행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다. KTX를 타고 김천구미역에 내려 금오산을 찾으려면 차로 족히 30분은 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의 진정한 멋을 살피려면 금오산으로 향할 것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도립공원 1호인 금오산도립공원을 목적지로 선택해 이동하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매표소를 찾을 수 있다.

해발 976m, 비교적 높지는 않으나 금오산은 등반하기 어렵다는 돌산에 속한다. 4개 코스 중 선택해 산을 오를 수 있는데 난도 때문에 머뭇거리게 된다면 15분마다 운행하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좋다. 6분 30초 만에 산 중턱에 닿을 수 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행하며 오르는 동안 2km 길이의 금오산성을 관망할 수 있다.

SPOT 2

건강의 염원을 담아, 해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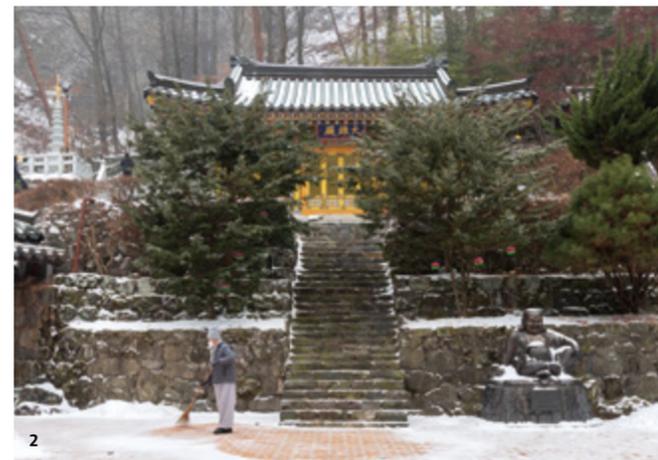
눈 쌓인 금오산을 보기가 쉽지 않는데 이날은 소복하게 눈이 쌓여 고즈넉함이 배가 되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조금 걸으니 곧 해운사 입구가 나타났다. 눈 쌓인 길 곳곳에 놓인 돌탑에 잠시 머물러 돌을 쌓아 올린 이들의 염원에 마음을 보냈다. 구름도 쉬어가는 사찰이라는 뜻을 지닌 해운사는 임진왜란으로 폐사됐다가 1925년 복원됐다. 사락사락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스님의 비질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 포근하게 마음을 다독였다. 대웅전 오른쪽에 조성된 약사여래불 앞에서 오래 머물던 이는 분명 소중한 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중생의 병을 치료한다는 약사여래불 한쪽,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놓고 간 소품들이 아기자기하게 놓여 있다. 고개를 들면 뒤쪽에 높이 28m의 대혜폭포가 위용을 떨치고 있다. 떨어지는 물소리가 금오산을 울린다고 해 명금폭포라고도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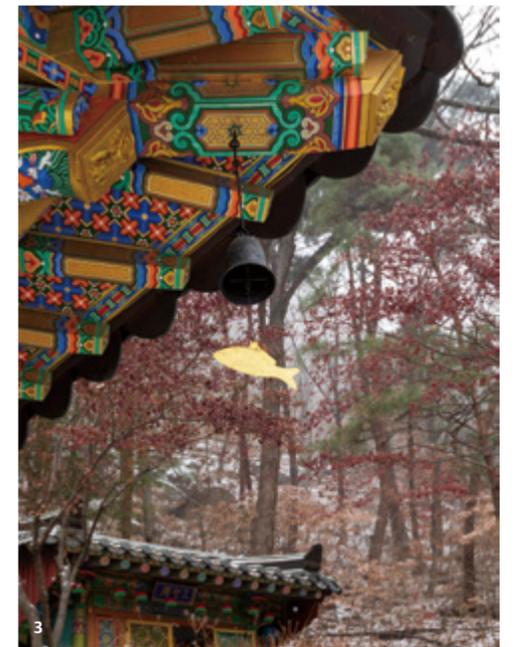
1 금오산 정상 풍경. 저 멀리 약사암이 보인다
2 눈 쌓인 해운사, 스님의 비질 소리가 정겹다
3 해운사 곳곳의 금빛 장식들이 '황금빛 까마귀'라는 산의 이름, 금오(金烏)를 연상케 한다



해운사까지 달는 케이블카. 금오산성을 관망하며 고즈넉함을 누릴 수 있다



2



3



1 금오산 올레길 풍경. 너른 금오지를 따라 걷는 2.4km 수변 산책길이다
 2 책 읽는 금리단길 카페 8곳 중 하나인 '카페무이'. 커피와 책, 가족 공방이 어우러진 곳이다
 3 독립서점 '책봄' 내부. 대형서점과는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SPOT 3

터벅터벅, 금오지를 따라 고요히 걷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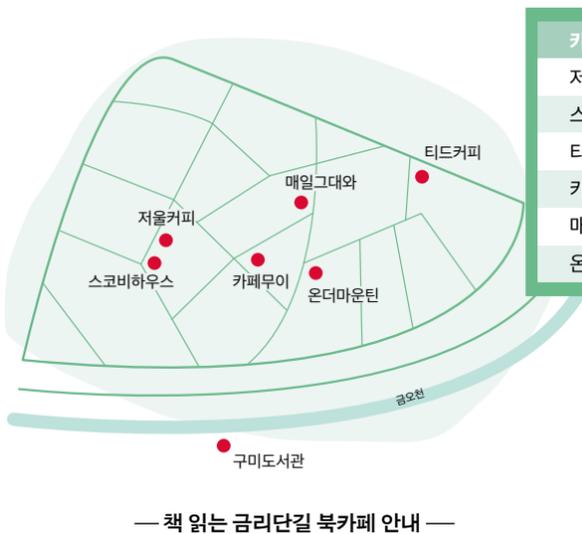
산 아래에 걷기 좋은 길, 금오산 올레길을 마주했다. 도립공원 안에 자리한 금오지를 둘러보며 걷도록 조성한 이 길은 천천한 걸음으로 40분 정도면 완주 가능하다. 흙길과 숲길, 데크를 따라 산책하며 다각도의 풍경을 눈에 담아보길 추천한다. 사시사철, 다른 매력을 선사하지만 한겨울의 금오지는 조금 더 고요하고 안락하게 여행자를 품어 준다.

올레길 초입에 자리한 동상의 주인공은 독립투사 박희광 선생이다. 그는 16세부터 항일독립군 대원으로 투쟁했으며 친일 인사를 처단하는 암살단으로도 활동했다. 뒤통수에서 20년이나 옥고를 치렀으나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그의 서사를 눈으로 읽어 내리며 잠시 머물러봐도 좋겠다.

SPOT 4

구미의 새 얼굴, 금리단길

구미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각산마을 금리단길에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꾸민 공방과 카페, 소품 숍과 맛집 등 즐길거리가 그득히 들어찼다. 빵 굽는 냄새, 원두 볶는 향이 불쑥 코끝을 스칠 때면 살며시 드러나는 공간들은 각자의 멋과 이야기로 반짝거린다. 최근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금리단길'이라는 테마로 카페 6곳을 선정해 '마음, 그림책, 여행, 디저트, 시, 미술'이라는 주제로 큐레이션한 도서를 지원했다. 보물찾기를 하는 아이처럼 지도를 따라 걸으며 카페를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했다. 이 외에도 색다른 도서를 찾아보고 싶다면 독립서점 '책봄'을 방문하길 추천한다. 대형서점과 사뭇 다른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만날 수 있다. 여행자를 반기는 정겨움이 가득한 이곳에서 책과 함께 여유롭게 여행의 묘미를 누리보길. 하루 끝에 정성껏 고른 책을 읽으며 마음에 닿는 문장 하나 새겨보는 것도 좋겠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구미천연가스발전소의 첫 삽을 떴습니다. 정부의 전력산업 연료전환 정책에 따라 석탄을 대체하는 청정에너지 발전소로 발돋움할 한국서부발전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2025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서부발전을 위하여

공존동생(共存同生)이란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생존이란 단어가 요즘처럼
우리 삶에 직결된 때가 있었을까 생각하지만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매 순간 찾아오던 위기를
함께하는 지혜로 이겨냈던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와 함께한 순간은
오래 기억되며, 다음을 살아낼 힘이 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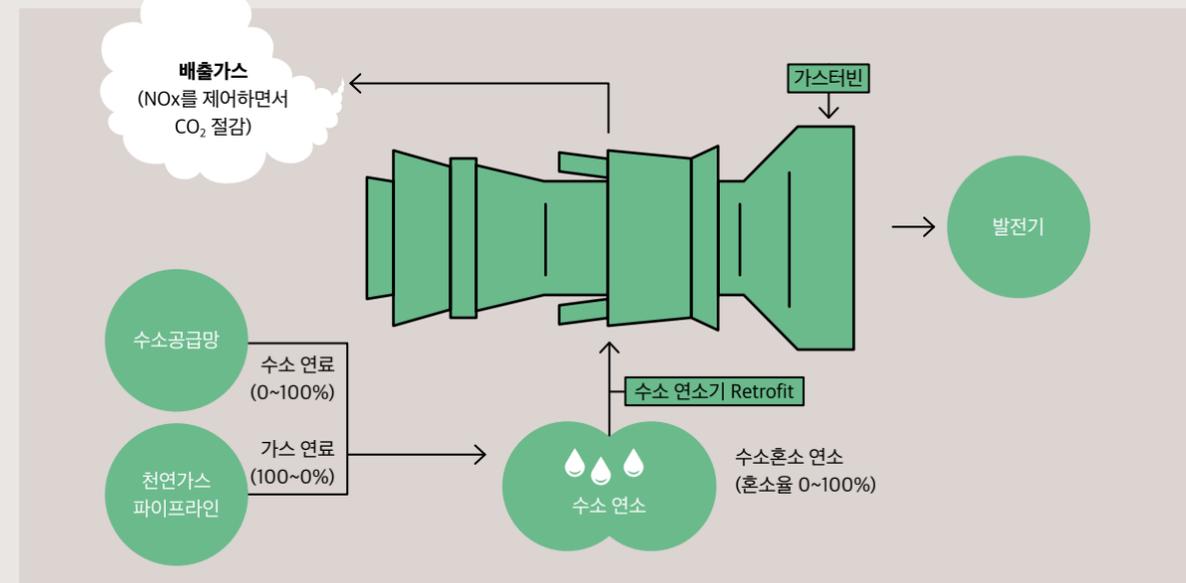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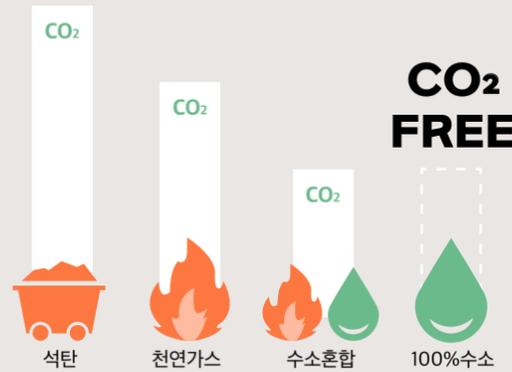
그렇기에 오늘 서부발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소혼소 발전 어디까지 왔을까?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최초로 확보한 수소혼소 발전 기술의 A to Z!
탄소중립에 한 걸음 다가가는 여정을 함께 살펴본다. 자료 제공 **임정섭** (수소환경처 연구개발부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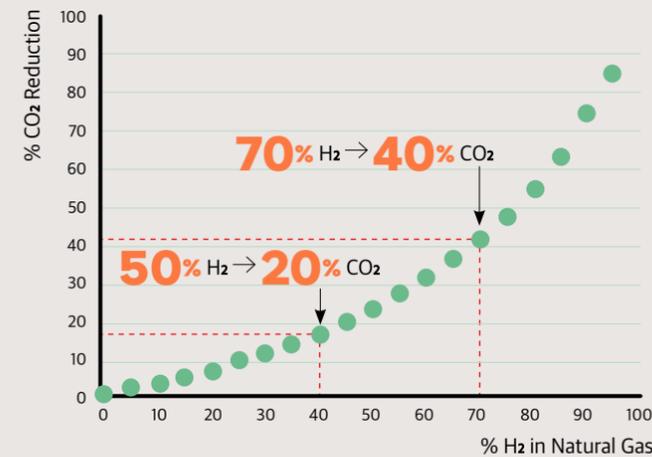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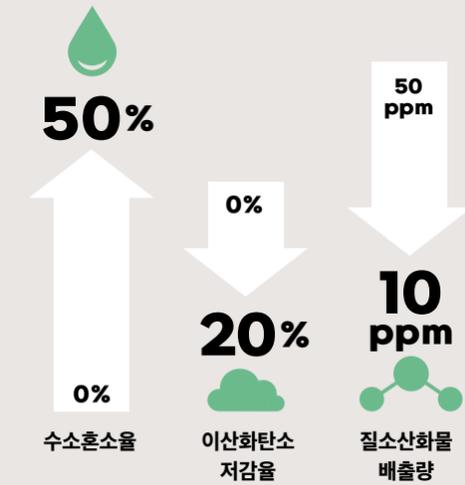
수소혼소 발전, 쉽게 이해해볼까?

수소혼소란 가스터빈에 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를 혼합해 연소하는 친환경 발전 기술이다. 연소 중 혼합된 수소량에 비례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줄어든다. 또 수명을 다한 가스터빈을 개조해 재사용하기에 발전설비 비용을 아낄 수 있어 경제적이다.



수소혼소율 50%에 도전한다

2021년 3월 한화임팩트와 '수소혼소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는 폐지된 평택 1복합 설비(80MW급)를 개조해 수소혼소 가스터빈을 개발, 실증하고 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0ppm 이하로 줄이는 친환경 기술 개발도 병행 중이다. 목표는 올해 상반기까지 수소혼소율 50%에 도전해 발전 실증을 마무리하는 것. 이를 달성하면 가스터빈 복합발전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20% 이상 줄일 수 있다.



멈추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까지!

한국서부발전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50MW급 가스터빈을 개조해 수소혼소율 70%에 도전한다는 계획으로 2022년 7월 한화 임팩트, SK E&S와 수소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150MW급 가스터빈을 수소혼소율 70% 설비로 바꾸는 데 성공한다면 연간 13만 톤의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중형차 약 5만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분량의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것과 같은 효과다.

수소 생태계를 넓혀 지구 환경에 기여하기

탄소중립을 이끌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각오가 남다른 한국서부발전은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해 수소혼소 연소기 등의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힘찬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4인 4색 인터뷰! 공존을 공론하다

공존의 조직문화를 위해 모인 임직원 4인! 익명이 보장된 오픈 채팅방에서 1시간 동안 제시된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며 한국서부발전의 업무문화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SITUATION 1. 업무 분담과 지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지시자는 이행자가 최적의 경로를 스스로 찾아 최고 속도로 최선의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 반면 이행자는 왜 자신이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인지, 이 일은 왜 필요한지, 효율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지시받길 원한다.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니즈를 탐색해봤다.

두근두근님, 안녕님, 프로도님, 튜브님이 들어왔습니다.

서부발전



반갑습니다. 먼저 각자의 부서에서 어떻게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 볼까요?



안녕

정기적인 업무 외의 일이 생길 경우, 업무분장표를 토대로 가장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 일임해요.



튜브

담당자가 정해진 업무가 아니라면 업무 능력이 높은 직원에게 일이 주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프로도

저희는 업무 성격상 팀원들이 다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분장이 필요한 때에는 자율적으로 협조하는 편인데, 튜브 님네 경우에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튜브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경험치가 있는 직원에게 일이 몰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는 편이라 업무 방향 제시나 조율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서부발전



그렇다면 지시 상황에서 지시자와 이행자 간 선순환을 위해 조율할 점은 없을까요?



안녕

지시를 하실 때, 명확하고 확실하게 내용을 말해주면 좋겠어요. 마감 기간까지 확실하게 지켜주면 더 좋고요!



튜브

업무 지시 전에 결론을 내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 상사와 함께 일할 때 좀 힘들지요.



SITUATION 2. 진급 체계에 대한 생각, 허심탄회하게 나눠보자!

서부발전의 진급 체계는 일반 기업과 사뭇 다르다. 차장 진급 시험의 문턱이 높은 것이 사실! 마의 구간을 넘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도, 도전 자체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직급이 다른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번에는 진급 체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차장 진급 시험 관련 의견부터 나눠 볼까요?

서부발전



프로도

저도 '답정너' 유형의 상사와 일해본 경험이 떠올라서 웃음이 나네요. 저는 수용하듯 받아들였다가 차후에 제 논리에 맞는 근거 자료를 들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두근

좋은 방법이에요! 바로 반박할 경우 언짢은 감정이 불쑥 솟아오를 수도 있으니 시차를 두고 의견을 공유하면 좋은 것 같아요.



프로도

무엇보다 업무 지시나 조율 과정에서 서로가 일을 지시하고 지시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고마운 마음을 우선하는 게 좋겠지요.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동료 의식을 수반하는 것도요.



두근

하야... 차장 진급. 승진을 할 것인지 워라밸을 찾을 것인지 선택하기 어렵죠. 다들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멋진 간부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프로도

진급 시험 응시율이 매년 떨어진다고 하는데, 본인이 선택할 문제인 것 같아서 강요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부발전



승진과 워라밸, 이 주제로 이야기를 좀해보게요. 차장으로 승진하면 곧 워라밸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두근

아무래도 우리 회사는 차장의 역할이 크니까. 업무 난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이와 비례해 개인 시간이 줄어드는 게 보통이에요.



프로도

몇몇 차장님이 업무 피로도를 호소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고생하는 만큼 회사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도록 성취감을 올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두근

부 처우 개선도 문제이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부장급 이상인 분들이 한 번 더 차장님들께 따뜻한 말을 건네고 업무를 지시한다기보다 같이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SITUATION 3.
커뮤니케이션 방식,
모두의 기호를
알아볼까?

세대에 따라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른 걸까?
일상의 대화부터 업무
지시까지 어떤 방식의
대화가 효과적일지,
상대방을 배려하고 잘
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했다.



두근

업무 중 문제가 생기면 질타부터 하는 상사 VS 해결책을 함께 찾는 상사,
누구와 일을 하고 싶은지는 명확하잖아요.



프로도

대리들에게 승진 시험을 강요하는 상사들도 많으신데, 응시율을 높이기보다 당사자들이
비전을 품고 멋진 간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안녕

필기 위주로 공부한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아 승진하기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더해지길 바라요.



튜브

네, 일머리 평가나 동료들의 평가 같은 거요.

필기 시험 점수를 높게 받는 것과 실제 업무 지식이나
일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문제이니까요.

서부발전



세대별로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두근

선호하는 방식은 분명 존재하지요. 젊은 사람일수록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통화하기보다는 특이나 메신저를 선호하는 거 같아요.



프로도

저는 조금의 미사여구를 나눈 후 대화하는 게 분위기도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튜브

세대의 문제로 보기보다 개인의 성격이나 화법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 윗분들일수록 얼굴을 보며 얘기
나누는 걸 더 편해하는 듯하네요.



두근

대면과 비대면을 선호하는 건 서로의 기호이니,
누가 맞다 그르다 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어떨까요?



안녕

용건은 간결하게 전달하되, 듣는 사람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업무를
지시하기보다는 자세한 상황 설명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그러다 보면 서로의 스타일도 알게 되어서 추후엔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죠.

서부발전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고려하면 좋을 점도 있을까요?



튜브

과도하게 사적인 질문은 하지 않아요!



두근

칭찬이든 흠이든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하지 않기!



프로도

윗사람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게 서로를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신의 업무 경험이나 인생 살아온 이야기 같은 거요.



두근

맞아요. 먼저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 너무 좋죠!



튜브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요.



안녕

상대방도 마음을 열기 수월하기도 하고요. 저는 재테크 성공한 경험이라든지 행복한
결혼 생활 노하우 같은 이야기는 오히려 궁금해요. 많이 여쭙고 싶어요!



두근

반면 윗분들이 얘기하시면 덮어놓고 곧대 취급하는 건 피해야 할 것 같아요.



튜브

맞아요. 사실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후배에게 관심을 둔다는
거니까 무조건 싫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프로도

온당한 조언일지라도 조금 더 친절히 설명하고 조언하는
이유도 풀어주면 MZ 후배들도 공감할 거예요.

서부발전



서로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까지 공유해주시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짹짹!

두근두근님, 안녕님, 프로도님, 튜브님이 나갔습니다.

그대들이 있어 늘 안심이다

코웨이서비스
이도연 파트장, 이순진 대리,
이순화 대리, 권혁남 주임

긍정 에너지로 서부발전 곳곳을 밝히는 사람들.
한결같이 안전과 청결을 위해 힘쓰는 영웅들을 소개한다.

서부발전이 태안에 자리 잡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 자회사 코웨이서비스 소속이 되기 이전부터 서부발전 임직원들을 위해 공간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고 손질했던 이들도.

“2015년 8월 서부발전 입주 청소부터 함께했어요. 2019년 1월 코웨이서비스 소속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이탈한 직원이 없고요,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어요. 만족도가 높아진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요.”

2년 전 파트장이 되어 직원 관리를 해온 이도연 파트장의 말이다. 15명의 직원은 구역별로 공간을 맡아 청소하고 관리하고, 파트장은 이들을 지원하며 사무 관련 일을 처리한다. 평소에는 직급을 넘어서서 언니, 동생 하며 지내기에 득실을 따지지 않고 서로의 안위를 돌보며 즐겁게 일한다. 모이면 하하 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들은 그저 서부발전에서 일할 수 있음에 기쁨을 느끼며 감사한다.



(왼쪽부터) 이순진 대리, 이도연 파트장,
이순화 대리, 권혁남 주임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안전하게 함께하자는
당부를 전했다. 나이
들어 퇴임하기 전까지
긍정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며 서부발전 곳곳을
밝히려는 이들이 있어
참 안심이다.”

1 서부발전 직원들이 오가는
정문 앞, 즐겁게 일하는 이순진
대리와 이도연 파트장
2 눈, 비가 오는 날이면
미끄러짐을 예방하기 위해
로비를 더 자주 점검한다



“저는 이곳이 첫 직장이에요.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죠. 정직원으로 소속감을 누릴 수 있는 데다가, 동호회 활동비까지 지원해주니 골프, 볼링, 수영을 즐기는 동료들이 많아요. 좋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커요. 빈말이 아니라 요즘 정말 행복하게 지내요.”

3층을 담당하는 이순화 대리처럼, 서부발전 자회사 코웨이서비스 소속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럽게 일하는 이가 많다. 한편 권혁남 주임은 2021년 공채 시험에 합격해 코웨이서비스에 합류했다. 첫 번째 시험에 낙방하고, 두 번째에 이룬 쾌거였다. 8명을 채용한다는 공고에 무려 134명이 몰려 긴장감이 컸지만, 최선을 다해 서류심사, 인성시험, 면접까지 통과해냈다는 그녀는 1층 로비를 담당한다. 덕분에 오고 가는 분들과 원 없이 인사를 나눈다는 권혁남 주임이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아름답다

2층을 관리하는 이순진 대리는 서부발전 직원들에게 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운을 뚫었다.

“오며 가며 마주치다 보면 어떤 분은 하루에 열 번도 넘게 만나게 되어요. 그런데도 볼 때마다 눈인사를 건네주시지요. 제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어느새 다가와서 번쩍 들어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청소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조금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자고 동료들과 늘 이야기 나누는 편입니다.”

그래서일까. 코웨이서비스 직원 중에는 새벽 6시부터 나와 사무실을 치우는 이들도 있다. 서부발전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깨끗한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돕기 위한 배려다. 서부발전 식구들 또한 “너무 깨끗해요”, “싱크대가 반짝반짝하네요” 등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으니, 더 힘이 난다는 이들도 있다. 매번 부서 이동으로 자리를 옮겨도, 뒷모습만 봐도 누구인지 다 알아본다는 이들의 말에서 서부발전 직원들을 향한 애정이 묻어났다.

대화 말미, 음료를 너무 많이 건네주어 몸무게가 불었다는 이순화 대리의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이처럼 상호 간의 배려와 감사가 넘쳐나니, 마주침이 곧 시너지가 된다. 이도연 파트장은 직원 대부분이 서부발전을 제2의 집이라 생각한다며 더 바랄 것은 없다고, 다만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안전하게 함께하자는 당부를 전했다. 나이 들어 퇴임하기 전까지 긍정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며 서부발전 곳곳을 밝히려는 이들이 있어 참 안심이다.

☀
**코웨이서비스
4인방이 전해온
신년인사**



“직원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코웨이서비스
직원들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일하겠습니다.”
- 이순화 대리

“직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코웨이서비스
동료들도 모두
건강해서 나이 먹어
퇴임할 때까지
멋지게 일합니다.”
- 이도연 파트장

“직원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어요. 올해에는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했으면 합니다.”
- 이순진 대리

“직책을 떠나 동네
언니, 동생처럼
지내는 우리 동료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
2023년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 권혁남 주임



나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곧 능력으로 평가되는 시대. 그런데 ‘적절한’이란 표현이 제법 아리송하다. 우리 각자는 이 표현이 내포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공존지수(Networking Quotient)를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공존지수 즉, NQ는 관계를 꾸려가는 능력이자 더불어 사는 능력이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이어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연결하고 지속시켜나가는 힘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과 소통할 때 호감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적절한 호감과 도움을 건네는 것은 예상보다 쉽지 않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과 약간의 처세술을 익힌다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간단한 OX 퀴즈를 통해 나의 의사소통 매너와 센스 지수를 점쳐보고, 바로잡아야 할 생각이 있다면 꼭 체크해두자. 자주 상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매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1. 상대를 만나기 전에 미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정보 몇 가지를 알아두는 정도는 괜찮지만 자칫하면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다. 용의주도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나왔다는 인상을 줄 경우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으로 비치기 쉬워 경계심마저 끌어올릴 수 있으니 주의할 것.

2.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만나 친밀해지며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주 만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잦은 연락이나 만남을 부추기는 언행은 삼가는 게 좋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돈독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먼저 주고 바라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조언, 위로는 물론이거니와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나눌 때 상대방은 부담보다 매력을 느끼며 당신에게 먼저 만남을 요청할 것이다.



3. 내 인맥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은 손해로 연결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인맥을 보호하고자 하는 심리로 인해 누군가에게 지인을 소개하기를 꺼린다. 자신이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 남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맥은 근육질이란 사실을 기억할 것! 인맥과 인맥을 연결할 경우 그 관계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되며 근육이 단단해지듯 관계는 더 견고해질 것이다. 좋은 사람을 소개 받은 경험이 기억으로 남아 누군가를 소개해야 할 경우 당신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4. 머리 좋은 경영자들은 술과 골프로 인맥을 관리하지 않는다?



술과 골프는 인맥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꼽히지만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쉽다. 만약 술에 취해 상대방에게 실수하거나 골프 경기에서 지고 있을 때 화를 내거나 불쾌감을 드러낸다면?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낙인을 얻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실수를 할 위험이 있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며 그보다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매력을 어필할 방식을 고민해보길 추천한다.

2023 계묘년 새해 새로운 시작

한국서부발전은 1월 2일 본사 컨벤션홀에서 계묘년(癸卯年) 시무식을 진행했다. 서부발전 임직원들은 해외지부 6곳과 9개 사무소 직원들이 출연한 새해다짐 영상을 시청하며 결속력을 다졌다. 유공직원 시상에 이어 2023년 다짐을 새긴 타임캡슐을 만드는 등 전년도 결산과 새해 출발의 의미를 모두 담은 뜻깊은 행사도 이어졌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

박형덕 사장은 “녹록지 않은 회사의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부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대담하고도 유연하게 위기를 극복하여 서부발전이 최고의 발전사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계묘년 시무식을 통해 전년도 결산 및 새해 출발의 의미 전달
2 2022년 유공 직원들이 수상하는 모습
3 2023년 도약을 위한 새 비전을 전하는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3

서부발전 NEWS



정부 재난 안전 대응 평가 4관왕 달성

한국서부발전이 2022년 정부가 주관한 재난 안전 대응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기록해 우수한 재난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2022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관리평가와 국가 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잇달아 최고등급을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어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으면서 재난 안전 분야에서 4관왕을 달성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재난통신망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 소방 안전원과 협력해 발전소 소방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2 안전·품질 상생 페스티벌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12월 27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2022 협력기업 안전·품질 상생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협력기업 안전·품질 상생 페스티벌은 한 해 동안 안전·품질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린 협력기업과 직원에게 포상하는 행사다. 이날 서부발전은 안전 등급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단체 부문 12개 우수사업장, 개인부문 우수직원 5명을 선정해 상패와 포상금을 전달했다.

노사합동 상생 소비 캠페인 진행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노동조합이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2년 12월 28일 충남 태안 전통시장에서 노사합동 상생 소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서부발전 노사는 자매결연 시장인 태안 서부전통시장을 찾아 식재료와 내복 등 월동용품 구매했으며, 구매한 식재료는 태안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차'를 통해 제공할 따뜻한 국과 반찬으로 조리,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 200명에게 월동용품과 함께 전달했다. 이외에도 서부발전 노사는 연말을 맞아 본사와 전국 8개 사업장에서 각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지구를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소확행

지구와의 공존을 위한 일상 속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이 '소확행'을 부른다.
날마다 뿌듯하게! 인증샷은 폼나게! 지구를 위한 챌린지.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다회용기를 늘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길 추천한다.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는 다회용기를 선택하자. 비닐, 빨대, 물티슈, 일회용 젓가락은 받지 않기!



일주일에 하루는 채식!

우리의 식탁을 일주일에 하루만 푸르게 물들여도 지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 다이어트 효과는 덤이다.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두꺼운 옷을 꺼입어야만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이미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카메라를 들어 인증샷을 찍어보자! 해시태그 몇 개면 충분하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소확행챌린지

지구 공존을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인증하고 선물 받자!

참여 방법

지구 공존을 위한 소확행 3가지를 실천한 후 인증샷을 찍어 개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한다.

#소확행챌린지 #지구공존 #한국서부발전 #서부공감

*공개 계정만 참여 가능

- 챌린지 기간 2월 24일(금)까지 · 당첨자 발표 3월 3일(금) 한국서부발전 공식 블로그
- 경품 모바일 상품권 2만 원권(5명)

여러분께 선물하고 싶어요!



2023년 새롭게 단장한 <서부공감> 어떠셨나요?

하단의 퀴즈를 풀어보세요.

구글폼에 정답을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QUIZ 1

지난해 12월 건설공사를 시작한 한국서부발전의 청정에너지발전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힌트 : 칼럼 <Road>를 참고하세요!

QUIZ 2

<Heroes>에서 소개한 코워포서비스 직원으로, 3층을 담당하며 밝은 에너지를 전하는 직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 ㅇㅅㅎ 대리



참여 방법 QR코드 찍고 구글폼에 정답 남기기 **참여 기간** 2월 20일(월)까지
당첨자 발표 3월 27일(월) 한국서부발전 공식 블로그
경품 커피 쿠폰(10명)